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 5월 29일 성대한 개막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오백년의 흥겨움!” 500년 전통의 민속축제, 지역과 세대를 잇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오백년의 흥겨움!’을 주제로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를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누타운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단오축제 중 하나로 강릉단오제, 자인단오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단오제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단오제는 그 전통의 깊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적 감각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더해 지역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절을 전후하여 개최되며, 조선시대 법성포 조창의 역사와 파시 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민속 제전 형태를 띠게 되었다. 고려 성종 11년(992년)에 설치된 법성포 조창은 조선 중종 이후 전국 최대 규모의 조운



창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군사, 인부, 상인, 주민들이 정착하였다. 이로 인해 단오라는 고유 명절이 민간 제전의 형식을 띠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법성포단오제가 지금과 같은 대중 축제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법성포의 조기파시와의 연관성도 크다. 파시의 활발한 물자 유통과 교역은 단오제의 재정적 기

반이 되었고, 단오를 맞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나눔의 문화’도 이 시기에 형성되어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다른 지역 단오제와 비교해도 차별화되는 민간 주도의 축제이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중

심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법성포단오제의 전통과 정서를 담은 창작 가무극이 첫선을 보이며 ‘단오 어린이 우리웃 뽀내기대회’, ‘낙화놀이’,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객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 학생들에게도 흥미롭고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로는 국가무형유산의 지정행사인 용왕제를 비롯해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전통 민속·제전행사와 기념식·단오제 씨름대회·청소년 페스티벌·학생 차예절 경연대회·민속놀이 경연대회·단식줄놀이·강강술래 등 각종 체험 및 초청가수 공연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담양군, 2025 농어촌 군(郡) 삶의 질 지수 2년 연속 ‘전남 1위’

농촌 삶의 질 국가 지표에서 2년 연속 최고 평가

담양군이 2년 연속 전남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농어촌 군(郡)으로 평가받았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5월 20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전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는 국가 통계 기반의 종합지표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분석해 산출한다.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다양한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마을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담양읍 원도심과 고서면, 봉산면 등지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여기에 최근 총사업비 369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보육·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대전 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총 250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문화거점시설로 재탄생시켜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장을, 지역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성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주민 주도의 마을 가꾸기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전남의 청정지역을 주민 스스로 관리·보전하는 사업이다. 공동체 의식 확산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성군은 올해 143개 마을을 ‘으뜸마을’로 선정했다. 마을별로 연간 500만 원

장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활발

올해 143개 마을 선정… 김한중 군수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최선”

씩 최대 3년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우수 마을로 선정된 장성을 잠암마을과 북일면 작동마을에는 200만 원의 장려해택이 추가 지원된다.

현재 △야간 경관조명 설치 △꽃밭 가

꾸기 △마을정원 조성 △벽화 그리기 등 마을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전라남도, 장성군, 외부 전문가

가 육동·서촌·원필암 마을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사업 방향과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면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복구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실단체소 및 읍·면 담당자들과 함께 복구계획 수립 훈련(NDMS)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사유시설 17개소와 공공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련 부서가 ▲상황 전파 ▲공공시설(도로, 하천·소하천,

고흥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복구계획 수립 훈련 실시

실제 상황과 유사한 단계별 모의훈련 통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상수도, 수리시설 등) 및 사유시설(민영, 주택, 농림·축산, 소상공인 등) 피해현황 입력 ▲복구 계획수립 등 재난 발생 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과정을 모의 진행했다.

공영민 군수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열린 ‘2025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칙칙폭폭 야시장’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호평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21일 전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하고 곡성군이 주관한 이번 야 시장은 제 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추진되어 많은 관광객이 야시장으로 자연스럽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칙칙폭폭 야시장’ 성황

게 유입되었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체험하고, 곡성을 내 상권까지 소비 동선을 넓히는 전방위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주)에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을 내 상권 연계 프로젝션을 진행하여 그 의미

를 더했다.

전라남도 장터유랑단의 공연과 젊은 층을 위한 EDM 파티, 시장 상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끼를 뽐낸 3·8 상인 노래자랑, 관광객 현장 노래방 등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시장 무대를 뜨겁게 달궜고으며, 먹거리 부스에서는 착한 가격으로 지

역 특산물과 상인들이 직접 조리한 분식, 전, 푸전 음식 등 다채로운 메뉴가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커피플레이, 모루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또한, 곡성군 11개 읍·면 마을 대표가 참여한 숲놀이 대항전은 각 읍·면 대표들이 팀을 이루어 숲을 단지고 응원하며 주민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곡성/이경수 기자

광양시,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

옥곡면 수평마을 일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목적 훈련 전개

광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산사태 취약지역인 옥곡면 수평마을 일원에서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2025년 산사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훈련에는 경찰서, 소방서,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옥곡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역할 분담에 따라 실질적인 임무 수행에 나섰다.

담당 공무원은 1:1로 매칭된 거동 불편

주민 및 안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고, 경찰은 대피 거부자에 대한 설득과 조치를, 소방은 부상자 구조를, 면사무소는 긴급구호물품 배부 등의 지원을 담당했다.

김기홍 부시장은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